

다문화 가정 부모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은모¹, 최효식^{2*}

¹영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The Effect of Parent's Sex-role Attitude on Parent-child Relationship in Multicultural Families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서술적 이과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커플자료 분석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상 중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5,531쌍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과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모형 검증 방법에 기초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평등한 성 역할태도를 가질수록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과 간 크기 비교 결과,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경우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는 어머니-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있는 반면,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가 아버지-자녀관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상대방효과 보다는 자기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배우자의 성 역할태도 보다는 자신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 시 평등한 성 역할태도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아버지의 경우에도 평등한 성 역할태도가 긍정적 자녀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경험과학적 증거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the parental sex-role attitude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b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the parental sex-role attitude in married couples with immigrant women who have children under 5 years old. For the analyses, a total of 5,531 couple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included an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uple's sex-role attitud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ctor effect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s who were more conscious of gender equality displayed a better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this effect was greater in the case of the father's attitude than the mother's. Second, the father's sex-role attitud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artner effect o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whereas the mother's attitude did not. Third, the couple's actor effects were greater than their partner effects and this means that the personal sex-role attitude has a greater impact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an the partners' attitude.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derived from these empirical-scientific database results and related studies in educational program of gender equality attitude for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 Actor effects,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Multicultural families, Partner effects, Sex-role attitude, Parent-child relationship

본 논문은 2016년도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Tel: +82-33-260-6435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March 2, 2017

Revised March 30, 2017

Accepted June 9, 2017

Published June 30,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자녀의 행동적, 정서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1-3]. 부모-자녀 애착 연구들은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7]. 특히 부모의 특성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8-9].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특성이 부모-자녀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오고 있다[10-11].

하지만 부모의 특성이 부모-자녀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대다수의 연구는 부모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했다는 측정학적인 한계점이 있다. 부부와 같은 밀접한 관계는 상호의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측정학적으로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통계적 오류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한 배우자의 행동 및 특성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결과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효과(actor effects)와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s)를 모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12]. 따라서 부부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이라는 커플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의 경우 이질적인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 특성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 부담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가정의 여성보다 더 높다[13].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서 평등한 성 역할태도에 기초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 진다.

성 역할태도는 여성과 남성 각각에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태도나 신념을 의미한다[14]. 성 역할태도는 여성과 남성 간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수준이 높은 전통적인(traditional) 성 역할태도부터 여성과 남성 간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는 평등적인(egalitarian) 성 역할태도로 구분될 수 있다[15-16].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의 성 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19]. 성 역할태도가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성 역할태도가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20]. 또한 남편과 아내의 평등한 성 역할태도는 남편의 가사 및 양육 참여를 증가시킨다[21].

특히 과급가설(spillover hypothesis)에 따르면 결혼의 질은 양육 행동으로 전이된다[22]. 즉, 좋은 부부 관계는 더 나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예측한다[23].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유발된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전이되어 지기 때문이다[24]. 따라서 성 역할태도는 결혼만족도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부와 같은 상호의존성이 있는 쌍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경우 통계적 오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쌍 자료는 일반 선형 모형(general linear model)의 기본 과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ordinary least squares(OLS) 회귀분석,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할 경우 통계 추론의 편향(bias)이 증가할 수 있다[25-27]. 부부와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료를 중다회귀분석이나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편향된 p -values와 부정확한 통계치(t , F)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28-29].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쌍 자료 분석방법과 관련된 연구들은 부부와 같은 커플 자료를 분석할 때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 접근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9]. APIM은 자신의 특성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자신의 특성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PIM의 이와 같은 장점을 활용하여, 자신의 성 역할태도가 자신의 자녀관계 특성과 관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자신의 성 역할태도가 배우자의 자녀관계 특성과 관련성을 가지는지 한 모형 내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APIM은 카이스퀘어 차이 검증(chi-square difference test)에 기초한 동일성 제약(equality constraints)을 활용하여 자기효과 크기 차이, 상대방효과 크기 차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크기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크

기 차이, 상대방효과 크기 차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크기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간의 성 역할태도, 부모-자녀관계 간 평균 차이를 확인한다.
- 2) 성 역할태도와 부모-자녀관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3)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한다.
- 4)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자기효과 크기 차이, 상대방효과 크기 차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크기 차이를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다문화 가정 부모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커플자료 분석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상 중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5,531쌍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부모의 성 역할태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묻는 3문항 중 2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이

며, 응답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1, 전혀 그렇지 않다=5)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 역할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성 역할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52$ 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계수는 문항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척도와 같이 적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Cronbach's α 를 활용한 신뢰도출 시 신뢰도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수치로 판단하였다.

2.1.2 부모-자녀관계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자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3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나는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이며, 응답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1, 전혀 그렇지 않다=5)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5$ 로 나타났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국가통계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통해 데이터 사용 목적을 밝히고, 심의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SPSS 20.0과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간의 성 역할태도, 부모-자녀관계 평균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APIM 분석을 위해 구조모형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구조모형 검증을 활용한 APIM 분석 시 자기효과, 상대방효과의 경로 추정치 간의 비교가 쉽기 때문이다[30]. 넷째, 구조모형 분석 시 계수 추정 방법으로 최대우법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영가설에 대한 엄격성이 높은 χ^2 [31]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적합도 지수인 CFI 지수(comparative fit index), NFI 지수(normed fit index), RMSEA 지수(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 지수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를 함께 고려하였다[32-34].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 여성인 어머니의 만 나이 평균은 30.60세($SD=5.71$), 한국인 아버지의 만 나이 평균은 43.14세($SD=5.9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2,235명(40.4%), 중졸 이하 1,582명(28.6%), 4년제 대학졸 이상 1,020명(18.4%), 전문대졸 694명(12.5%) 순이었으며, 한국인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3,013명(54.5%), 4년제 대학졸 이상 1,130명(20.4%), 전문대졸 785명(14.2%), 중졸 이하 603명(10.9%)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동부 3,333가구(60.3%), 읍면부 2,198가구(39.7%)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2,128가구(38.5%), 300~400만원 미만 1,224가구(22.1%), 100~200만원 미만 1,122가구(20.3%), 400~500만원 미만 500가구(9.0%), 500~600만원 미만 239가구(4.3%), 100만원 미만 194가구(3.5%), 700만원 이상 64가구(1.2%), 600~700만원 미만 60가구(1.1%) 순으로 확인되었다.

3.2 성 역할태도, 부모-자녀관계 평균 차이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간에 성 역할태도, 부모-자녀관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기 전에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Levene 검증결과를 확인한 결과, 부모-자녀관계($F=3.39, p>.05$)는 등분산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 역할태도($F=21.94, p<.001$)는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아 Welch-Aspin 검정값을 활용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 결과를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더 평등한 성 역할태도($t=11.40, p<.001$)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관계($t=30.28, p<.001$) 또한 더 원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531$ dyads)

Variables	Category	Mother		Father	
		<i>n</i>	%	<i>n</i>	%
Age (yr)	≤30	2,984	54.0	102	1.8
	31-35	1,466	26.5	466	8.4
	36-40	740	13.4	1,145	20.7
	≥41	341	6.2	3,818	69.0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1,582	28.6	603	10.9
	high school	2,235	40.4	3,013	54.5
	College	694	12.5	785	14.2
	Over bachelor's degree	1,020	18.4	1,130	20.4
residential district	dong	3,333(60.3%)			
	rural area	2,198(39.7%)			
family's monthly incomes	Less than 1 million won	194(3.5%)			
	Between 1~2 million won	1,122(20.3%)			
	Between 2~3 million won	2,128(38.5%)			
	Between 3~4 million won	1,224(22.1%)			
	Between 4~5 million won	500(9.0%)			
	Between 5~6 million won	239(4.3%)			
	Between 6~7 million won	60(1.1%)			
More than 7 million won	64(1.2%)				

Table 2. Difference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N=5,531$ dyads)

DV	IV	<i>N</i>	Mean	<i>SD</i>	<i>t</i>	effect size
gender role attitudes	mother	5,531	4.16	.72	11.40***	.23
	father	5,531	4.00	.71		
parent-child relationship	mother	5,531	4.29	.64	30.28***	.59
	father	5,531	3.90	.68		

*** $p<.001$

3.3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자료가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구조모형 검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 역할태도, 부모-자녀관계 측정변인의 단변량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최대우도법 적용 시 절대값 기준으로 왜도가 2보다 크지 않고, 첨도가 4보다 크지 않을 때 정규성이 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3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의 왜도의 범위는 -1.75에서 .01사이였고, 첨도의 범위는 -.70에서 2.96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가정된다고 볼 수 있다.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는 어머니-자녀관계,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 아버지-자녀관계와 정적 상관의 패턴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 또한 아버지-자녀관계,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 어머니-자녀관계와 정적 상관의 패턴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관분석에 기초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는 부

모-자녀관계에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5,531 dyads)

	1	2	3	4	5	6	7	8	9	10
1	1									
2	.298**1	1								
3	.237** .112**1		1							
4	.092** .223** .357**1			1						
5	.230** .108** .129** .063**1				1					
6	.083** .087** .067** .042** .231**1					1				
7	.195** .107** .140** .074** .675** .247**1						1			
8	.138** .075** .345** .204** .245** .099** .257**1							1		
9	.040** .042** .141** .136** .051** .376** .068** .269**1								1	
10	.135** .082** .316** .201** .225** .105** .282** .712** .233**1									1
11	.164** .078** .202** .145** .295** .123** .335** .313** .144** .306**1									
12	.137** .070** .221** .168** .196** .097** .220** .338** .162** .366**1									
M	4.41	3.90	4.35	3.65	4.64	3.65	4.56	4.35	3.05	4.32
SD	.77	1.01	.76	.96	.63	1.22	.68	.74	1.15	.77
Sk	-1.23	-.67	-1.01	-.36	-1.75	-.59	-1.55	-.89	.01	-.91
Ku	1.20	-.15	.63	-.32	2.96	-.61	2.14	.22	-.70	.38

* p<.05, ** p<.01

1. mother's gender role attitudes(1), 2. mother's gender role attitudes(2), 3. father's gender role attitudes(1), 4. father's gender role attitudes(2), 5. mother-child relationship(1), 6. mother-child relationship(2), 7. mother-child relationship(3), 8. father-child relationship(1), 9. father-child relationship(2), 10. father-child relationship(3)

3.4 부모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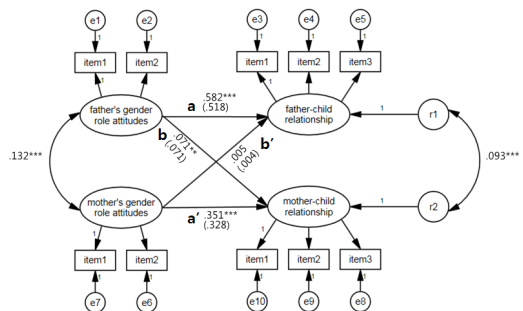
다문화 가정 부모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APIM 모형을 만든 후 구조모형 검증을 하였다. APIM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29, N=5,531)=1181.267, p<.001, NFI=.906, CFI=.908, RMSEA=.085, SRMR=.053$ 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해석 가능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경로계수를 보면,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가 아버지-자녀관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를 빼고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아버지-자녀관계에 정적인 영향($\beta=.518$),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가 어머니-자녀관계에 정적인 영향($\beta=.328$),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어머니-자녀관계에 정적인 영향($\beta=.07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 차이 비교

자기효과 간 차이비교, 상대방효과 간 차이비교,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차이비교를 위해 경로계수의 동일화 제약을 가한 APIM 모형을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APIM 모형과 비교하였다. 즉, 자기효과 간 차이비교를 위해 경로계수 간 동일화 제약($a=a'$)을 가했으며, 상대방효과 간 차이비교를 위해 경로계수 간 동일화 제약($b=b'$)을 가했으며,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차이비교를 위해 각각 경로계수 간 동일화 제약($a=b', a'=b$)을 가했다.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저모형은 내포모형(nested model) 관계이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을 활용하였다[36].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 간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자기효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 = 19.497, p<.001$). 즉, 아버지($\beta=.518$)의 경우 어머니($\beta=.328$) 보다 자신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성 역할태도가 상대방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1) = 2.606, p>.05$). 셋째, 아버지의 경우 상대방효과보다는 자기효과 크기가 더 크며($\chi^2(1) = 101.488, p<.001$), 어머니 또한 상대방효과보다는 자기효과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chi^2(1) = 33.923, p<.001$).



** p<.01, *** p<.001

Fig. 1.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of self-esteem (SE) predic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RS)

Table 4. Equality constraint tests regarding model fit
($N=5,531$)

Model	χ^2	df	NFI	CFI	RMSEA (90% CI)	SRMR	χ^2 difference test
baseline model	1181.267 ***	29	.906	.908	.085 (.081- .089)	.053	
Equality constraint ($a=a'$)	1200.765 ***	30	.904	.906	.085 (.081- .089)	.054	$\chi^2(1) = 19.497$ ***
Equality constraint ($b=b'$)	1183.874 ***	30	.905	.907	.083 (.079- .087)	.053	$\chi^2(1) = 2.606$
Equality constraint ($a=b'$)	1282.756 ***	30	.898	.900	.087 (.083- .091)	.058	$\chi^2(1) = 101.488$ ***
Equality constraint ($a=b$)	1215.191 ***	30	.903	.905	.085 (.080- .089)	.055	$\chi^2(1) = 33.923$ ***

*** $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활용하여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검증에 앞서,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간에 성 역할태도와 부모-자녀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 보다 더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의 평등한 성 역할태도를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자녀관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는 어머니-자녀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아버지-자녀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평등한 성 역할태도를 가질수록 긍정적인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APIM 적용 연구에서 부모의 특성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37]를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 간 자기효과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경우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는 자녀 발달 과정에서 어머니와 구별되고, 상호보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38-39]. 특히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일반 가정 보다 양육 과정의 어려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평등한 성 역할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원만한 자녀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는 다문화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 성 역할태도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는 어머니-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있는 반면,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는 아버지-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어머니-자녀관계가 더 원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을 겪는다[40-41].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배우자 지지 및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는 자녀양육 및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2-44]. 살펴본 선행연구에 기초했을 때, 한국인 남편이 평등한 성 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배우자 지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자녀관계가 더 원만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성 역할태도가 자녀관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 보다는 자기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다수 APIM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45]. 즉, 배우자보다는 먼저 자신이 평등한 성 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원만한 자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 역할태도가 전통적인지, 평등적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적인 성 역할태도를 갖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부라는 쌍 자료를 개별적인 통계기법으로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와 달리, APIM을 이용하여 부

부 간 상호 역동성을 측정학적으로 타당하게 검증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일반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커플 자료 분석 연구들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다문화 가정의 부부 간 상호작용을 확인했다는 학문적 독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 역할태도와 부모-자녀 간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힘으로써, 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 시 평등한 성 역할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는 실제적 의의가 있다. 특히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평등한 성 역할태도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문항에 응답한 다문화 가정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다른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성 역할태도,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적은 문항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개념적으로 포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측정학적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를 활용한 재검증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에 기초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였다. 명확한 인과관계에 기초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Burt, S. A., McGue, M., Iacono, W. G., Krueger, R. F., 2006, "Differential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externalizing symptoms: Cross-lagged analyses within a monozygotic twin differences desig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2, no. 6, pp. 1289-1298, 2006.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42.6.1289>
- [2] Klahr, A. M., Rueter, M. A., McGue, M., Iacono, W. G., Burt, S. A.,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nflict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onfirming shared environmental medi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39, pp. 683-694, 2011.
DOI: <http://dx.doi.org/10.1007/s10802-011-9505-7>
- [3] O'Connor T, G., Wang, H., Moynihan J. A., Wyman P. A., Carnahan, J., Lofthus, G., Quataert, S. A., Bowman, M., Burke, A. S., Caserta, M. T., "Observed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predicts antibody response to vaccination in children", *Brain, Behavior, and Immunity*, vol. 48, pp. 265-273, 2015.
DOI: <https://doi.org/10.1016/j.bbi.2015.04.002>
- [4]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2, no. 4, pp. 664-678, 1982.
DOI: <http://dx.doi.org/10.1111/j.1939-0025.1982.tb01456.x>
- [5] Cassidy, J., Shaver, P. R.,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NY: Guilford Press, 2008.
- [6] Paulson, S. E., Hill, J. P., Holmbeck, G. N., "Distinguishing between perceived closeness and parental warmth in families with seventh-grade boys and girl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1, no. 2, pp. 276-293, 1991.
DOI: <http://dx.doi.org/10.1177/0272431691112007>
- [7] Sroufe, L. A., Egeland, B., Carlson, E. A., Collins, W. A.,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 The Minnesota study of risk and adaptation from birth to adulthood*, New York, NY: Guilford Press, 2009.
- [8] J. Y. Kim, S. I. Nam, S. A. Choi, "The effects of parental discipline styles on adolescent hostilit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vol. 15, no. 3, pp. 121-147, 2010.
- [9] M. G. Choi, Y. H. Kim, H. S. Jeong,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al and marital relationship on mother-child relation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3, pp. 221-237, 2014.
- [10] S. W. Jang, H. J. Chung, J. Y. Lee,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marital intimacy on parent-child rel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5, no. 4, pp. 93-111, 2011.
- [11] Y. Chin, N. Y. Lee, Y. J. Jeong, "Acculturation of immigrant parents and parent-adolescent child relationships in asian american families: A meta analysi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6, no. 2, pp. 19-34, 2011.
- [12] Cook, J. L., Kenny, D. A.,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9, no 2, pp. 101-109, 2005.
DOI: <http://dx.doi.org/10.1080/01650250444000405>
- [13] M. S. Park,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parenting stress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46, pp. 1-23, 2014.
- [14] Y. H. Kim, "Gender rel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7, no. 1, pp. 1-30, 2004.
DOI: <https://doi.org/10.1353/jks.2004.0003>
- [15] S. H. Jang, "Socialization of gender role and satisfaction of business relation among male-female employee",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3, no. 1, pp. 1-28, 1991.
- [16] King, L. A., King, D. W., "Abbreviated measures of sex roles egalitarian attitudes", *Sex Roles*, vol. 23, pp.

- 659-673, 1990.
DOI: <https://doi.org/10.1007/BF00289254>
- [17] E. H. Lee, "A study on the sex role attitud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dual-earner men and women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10, pp. 99-119, 2002.
- [18] H. S. Jeon, M. Seo, "Effects of conjugal power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coupl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4, pp. 349-357,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4.349>
- [19] Amato, R. R., Johnson, D. R., Booth, A., & Rogers, S. J., "Continuity and change in marital quality between 1980 and 2000",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5, no. 1, pp. 1-22, 2003.
DOI: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3.00001.x>
- [20] Perry-Jenkins, M., Crouter, A. C., "Men's provider-role attitudes: Implications for household work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11, no. 2, pp. 136-156, 1990.
DOI: <http://dx.doi.org/10.1177/019251390011002002>
- [21] Jansen, M., Kalmijn, M., Investments in family life: The impact of value Orientations on patterns of consumption, production and reproduction in married and cohabiting couples, In R. Lesthaeghe (Ed.), "Meaning and choice: Value orientations and life course decisions", pp. 129-159, The Hague/ Brussels: Nidi/CBGS, 2002.
- [22] Davies, P. T., Sturge-Apple, M. L., Weitach, M. J., Cummings, E. M., "A process analysis of the transmission of distress from interparental conflict to parenting: Adult relationship security as an explanatory mechanism",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5, no. 6, pp. 1761-1773, 2009.
DOI: <http://dx.doi.org/10.1037/a0016426>
- [23] Stroud, C. B., Durbin, C. E., Wilson, S., Menelsohn, K. A. "Spillover to triadic and dyadic systems in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25, no. 6, pp. 919-930, 2011.
DOI: <http://dx.doi.org/10.1037/a0025443>
- [24] Cox, M. J., Paley, B., Harter, H,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J. H. Grych, F. D. Fincham (Eds.),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249-272,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DOI: <https://doi.org/10.1017/CBO9780511527838.011>
- [25] Kenny, D. A.,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 13, no. 2, pp. 279-294, 1996.
DOI: <https://doi.org/10.1177/0265407596132007>
- [26] Kenny, D. A., Judd, C. M., "Consequences of violating the independence assumption in analysis of 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vol. 99, no. 3, pp. 422 - 431,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99.3.422>
- [27] Little, T. D., Card, N. A., "On the use of social relations and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s in development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9 no. 2,, pp. 173-179, 2005.
DOI: <https://doi.org/10.1080/01650250444000388>
- [28] Cook, W. L., "Integrating models of interdependence with treatment evaluations in marital therapy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2, no. 4, 529-542, 1998.
DOI: <https://doi.org/10.1037/0893-3200.12.4.529>
- [29] Cook, W. L., Kenny, D. A.,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9, no. 2, pp. 101-109, 2005.
DOI: <https://doi.org/10.1080/01650250444000405>
- [30] Kenny, D., Kashy, D., Cook, W.,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NY: Guilford, 2006.
- [31] Hoyle, R. H., Panter, A. T., Wri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158-176, Thousand Oaks, CA: Sage, 1995.
- [32]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no. 2, pp. 238-246, 1990.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07.2.238>
- [33] Steiger, J. H.,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25, no. 2, pp. 173-180, 1990.
DOI: http://dx.doi.org/10.1207/s15327906mbr2502_4
- [34] Tucker, L. R., Lewis, C.,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 38, no. 1, pp. 1-10, 1973.
DOI: <http://dx.doi.org/10.1007/BF02291170>
- [35] West, S., Finch, J., Curran, P.,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CA: Sage Publications, 1995.
- [36] Bentler, P. M.,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no. 2, pp. 238-246, 1990.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07.2.238>
- [37] E. M. Yeon, H. O. Yoon, H. S. Choi,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incomes on the relationship among marital conflict, depression, and parenting attitude: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2, pp. 1-28, 2016.
- [38] Cabrera, N. J., Shannon, J. D., Tamis-LeMonda, C., "Fathers'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toddlers to pre-K",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vol. 11, no. 4, 208-213, 2007.
DOI: <http://dx.doi.org/10.1080/10888690701762100>
- [39] Weitzman, M., Rosenthal, D. G., Liu, Y.-H.,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behavioral or emotional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Pediatrics*, vol. 128, no. 6, pp. 1126-1134, 2011.
DOI: <http://dx.doi.org/10.1542/peds.2010-3034>
- [40] E. M. Lim, S. J. Jeong, S. J. Lee,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s cultural adaptation types and acculturation stres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3, pp. 957-973, 2010.
DOI: <https://doi.org/10.15703/kjc.11.3.201009.957>
- [41] Y. H. Choi, H. S. Lee, "A study discrimination

experience, life satisfac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96-103,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96>

- [42] S. O. Kim, H. S. Kim, "Effects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the child rearing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6, pp. 462-473, 2016.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6.462>
- [43] H. K. Lee, H. I. Jeon,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8 no. 4, pp. 413-432, 2013.
DOI: <http://dx.doi.org/10.13049/kfwa.2013.18.4.413>
- [44] M. H. Jung,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practices of immigrant women focusing on parent 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 8, 257-276, 2013.
- [45] M. J. Kim, B. S. Yee, M. R. Chung,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the actor and partner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on the parenting stress of parents with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care & Education, vol. 12, no. 3, pp. 1-19, 2016.
DOI: <http://dx.doi.org/10.14698/jkce.2016.12.03.001>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학습전략, 인출